0. 여느 날처럼 토순이는 길을 걷고 있었다. 그런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거북이가 길에 서서 무언가를 찾듯이 목을 빼고 두리번 두리번거리며 서있었다.

애니메이션

토끼 : 다가오는 애니메이션, 목을 쭉 빼고 두리번거리는 애니메이션

1-1. 숨는다.

1-2. 신경 쓰지 않고 거북의 앞을 지나간다.

* 1. 토순이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.   
     거북은 찾던 것을 발견한 표정으로 느릿느릿 토순이에게 다가가고 있다.

애니메이션

토끼 : 다가오는 애니메이션, 목을 쭉 빼고 두리번거리는 애니메이션

거북 : 느릿느릿 기어오는 애니메이션

1-2. 거북은 잘됐다는 표정으로 토순이를 쳐다보며 말을 건넨다.

거북 : 안녕~날씨도 더운데 어디 가는 길이야?

토순 : 어어.. 안녕 난 집으로 가는 길이야.

거북 : 그래? 나랑 달리기 경주를 하지 않을래? 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거든.   
나한테 이기면 당근을 줄게.

토순 : 그래 알겠어. 내가 이기면 꼭 주는거다?

애니메이션

토끼 : 다가오는 애니메이션, 목을 쭉 빼고 두리번거리는 애니메이션, 주둥이 놀리는 애니메이션,

거북 : 느릿느릿 기어오는 애니메이션, 주둥이 놀리는 애니메이션

심판이 도착하고 둘은 달리기 경주를 시작한다.(여기서 미니게임 달리기)

달리던 와중 선택지가 뜬다.

2-1. 계속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한다.

2-2. 아니다 너무 힘들게 달려서 숲속에서 쉬다가 간다.

2-1. 결승점에 도착한 토식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기다리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팔을 잡아끈다. 고개를 돌리자 거북과 모양새가 비슷한 자라가 자신을 잡아끌고 있다.

자라 : 미안해. 토식아. 용왕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. 그래도 토순이에게는 우리가 8잘 말하고 당근도 많이 줄게.

토식 : 싫어! 난 죽고싶지 않아! 날 내버려둬!

애니메이션

토끼 : 다가오는 애니메이션, 목을 쭉 빼고 두리번거리는 애니메이션, 주둥이 놀리는 애니메이션,

거북 : 느릿느릿 기어오는 애니메이션, 주둥이 놀리는 애니메이션